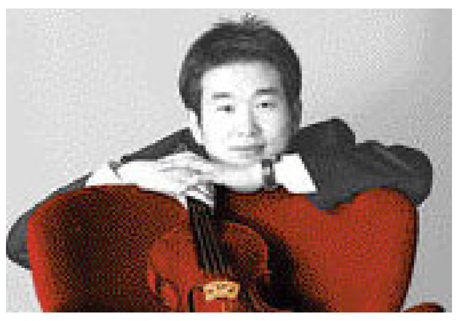
비올리스트 임요섭 귀국 독주회

내일 오후8시 서울 예술의 전당



광주 출신 비올리스트 임요섭 귀국 독주회가 2일 오후8시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전남대 출신으로 독일 마인츠 국립음대에서 석사와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친 임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코츠바라의 '소나타 C장조 작품번호 21'을 초연한다. 또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슈만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작품번호 70' 등을 들려준다.

임 씨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이며 전남대에 출강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산문화예술회관 1~12일

애니메이션 영화 8편 상영

광산문화예술회관(소장 박균섭)이 1~12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름 방학 특집 영화' 를 상영한다.

▲헷지(1, 2일) ▲인크레더블(3일) ▲마다가스카(4일) ▲케로로(5, 8일) ▲니모를 찾아서(9일) ▲슈렉2(10일) ▲붉은 돼지(11일)▲슈퍼맨4(12일) 등 최근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과 영화 8편이 상영된다.

상영시간은 화·토요일 오후 3시와 7시, 수·목·금요일 오후 3시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940-9762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말 솜씨도 글 솜씨만큼" 책 밖으로 나온 문인들

■시인·소설가들 라디오 외도

소설가와 시인 등 문인들이 책 밖으로 나와 목소리로 독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유명 작가들이 라디오 시사·문화 프로그램이나 문학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 독자이기도 한 청취자와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것. 작품으로만 만날 수 있던 작가의 생각이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공지영씨 인터뷰 솜씨 발휘

소설가 공지영(여·43·**사진 왼쪽**)씨는 지난 3월부터 CBS 라디오(광주 FM 103.1㎒)에서 시사 프로그램 '아주 특별한 인터뷰'(월~토요일 오후 4시5분~5시)를 진행하고 있다.

공씨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근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해 배우 안성기, 사진작가 배병우, 방송인 이다도시, 야구인 하일성씨 등 각계 각층의 인물을 초대해 그들의 성장 과정과 인생관 등을 들려줬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정혜윤 PD는 "프로그램의 부제가 '라디오로 듣는 자서전'인 만큼 게스트의 조그마한 에피소드까지도 끌어내는데 '공지영식'의 솔직담백한 화법이 통할 것으로 봤다"며 "공씨와 같이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제격"이라고 말했다.

소설가 김영하(39·**오른쪽**)씨는 KBS 제1라디오(광주 FM 90.5㎒)에서 '김영하의 문화포커스'(월~토요일 밤 10시10분~11시)를 진행 중이다.

김씨는 음악·영화·미술·문학 등 문화계 전반에 걸쳐 생생한 소식을 전해준다. 한 주 동안 가장 이슈가 된 작품에 대해 평론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주목받는 화제작', 통신원들이 세계의 문화계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 동네 이야기', 음악 코너인 '정만섭의 음악 속으로' 등이 진행된다.

김영하씨 문화계 소식 전해

소설가 조경란(여·37)씨는 EBS 라디오(광주 FM 105.3㎒)에서 책 소개 프로그램인 'EBS 오디오북'(월~토요일 오후 1시40분~2시)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소설·시·수필·교양서 등이 조씨의 감성을 담은 목소리로 청취자에게 전해진다.

한진숙 PD는 "전에는 소설 작품만을 선정해 원작을 각색하는 형식이었으나 현재는 여러 장르의 작품을 각색하지 않고 좋은 구절을 발췌, 낭독하고 있다"며 "진행자 개인의 짧은 느낌을 덧붙이기 때문에 청취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의 '세계 음악 기행'(월~토요일 오후 3~4시)은 시인이자 대중음악 평론가로 활동중인 성기완씨가 진행을 맡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서도 활동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 문학광장'(www.munjang.or.kr)에서는 시인 이문재(47)씨가 '문장의 소리-행복한 문학여행'(월요일 밤 10시 업데이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네티즌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방송을 통해 김별아·문태준·손택수·신현림·정이현·정지아·박라연씨 등 유명 문인들이 다녀가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거나 진행자와 작품 세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등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북한의 기념지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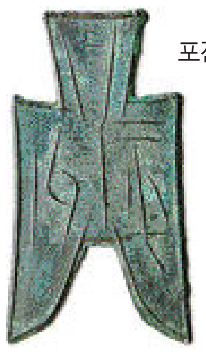
이스라엘 은화

페루 은화

중국 고대 동전. 오수전과 포전

근대주화 대동은전

상평통보



포전

국내외 희귀 화폐 다 모였네

2~9일 광주민속박물관 '조폐공사 광주 순회전'
8일까지 광주 신세계 갤러리 '세계 희귀 화폐전'

세계 각 나라와 국내 화폐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화폐 전시회가 잇따라 열린다.

화폐 인쇄술은 물론 경제학, 금속학 등 다양한 분야가 응용된 화폐의 제조 과학을 살펴보고 여러 나라의 돈을 경험·비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조폐공사와 함께하는 '우리 돈 이야기'=한국조폐공사(KOMSCO) 화폐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화폐 740여점이 2일부터 9일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선보인다. 화폐박물관은 지난 88년 개관한 국내 최초 화폐 전문박물관으로 우리 화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 순회전시를 갖는다.

'주화 역사관', '지폐역사관'과 '공사 홍보관' 등 3개 코너로 나눠 열리며, 돈은 물론 상품권, 우표, 메달, 훈장, 여권, 카드 등 화폐공사가 제조한 다채로운 제품도 선보인다. 첨단 위변조 방지기술과 내년 상반기 발행 예정인 새 만원권과 천원권도 미리 볼 수 있다.

조폐공사는 광주지역 소외 이웃들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한다. 관람객에게는 선착순 기념메달도 준다. 관람료는 무료. 문의 062-521-9041

◇'세계의 희귀 화폐전'=화폐수집가 강대령씨가 소장한 세계 희귀화폐 등 모두 300여점이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8일까지 전시된다.

우리나라 옛 화폐인 해동· 삼한· 조선통보, 중국 한나라 때 사용된 '오국군주', 춘추전국시대의 포전 등 볼거리도 푸짐하다.

제조 과정에서 문양이 틀어진 불량주화, 재단이나 인쇄가 잘못된 독특한 지폐· 주화를 비롯 위조 지폐도 진본과 함께 전시된다.

그리스의 주화 수집사와 중국에서 발행된 전지(錢誌)라는 화폐 연구책자도 공개된다.

부대 행사로 5일 오후 3시부터 화폐설명회가 열리며, '진품 명품 화폐감정'에서는 강대령씨가 참가, 관람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희귀화폐를 감정해준다. 문의 062-360-163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